

2005년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 및 설문조사 결과



우리협회에서는 고속도로상에서 타이어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고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업체와 합동을 타이어 안전사용점검 및 서비스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고는 금년에 실시한 총 8회의 안전점검과 상, 하반기 두 차례의 타이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점검일자와 장소

순번	일자	고속도로	휴게소
1차	3.25	경부	추풍령(하)
2차	4.22	경부	망향(하)
3차	5.13	서해안	서산(하)
4차	6.24	경부	기흥(하)
5차	7.22	영동	여주(하)
6차	8.19	영동	횡성(하)
7차	10.21	호남	여산(하)
8차	11.18	경부	망향(하)

※ 2월과 9월에 실시한 안전점검서비스는 명절 귀성차량을 대상으로 주로 공기압 조정과 같은 서비스 위주로 실시되어, 05년 안전점검 결과 집계에서는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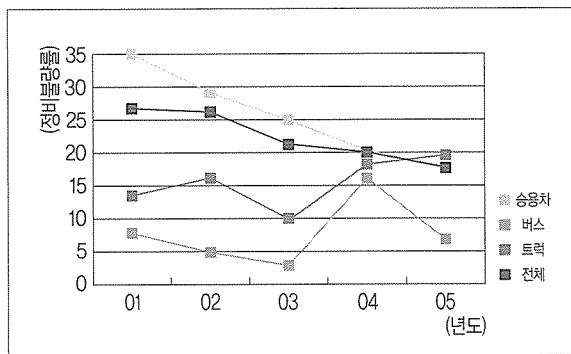
2. 차종별 점검결과

1) 금년 점검(8회)에서의 점검 차량수는 승용차 1,860대, 전세버스 119대, 트럭 227대, 총 2,206대였는데, 이들 차량 중 타이어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375대로 정비불량률은 17.0%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전년 19.8%보다 2.8%p 감소한 것이다.

2) 차종별 타이어 정비 불량률을 보면 승용차가 17.3%로

전년 20.2%에서 2.9%p 감소, 전세버스는 6.7%로 전년대비 9.2%p 감소를 보였고, 반면에 트럭은 19.8%로 1.3%p 증가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의 정비불량률은 아래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정비 불량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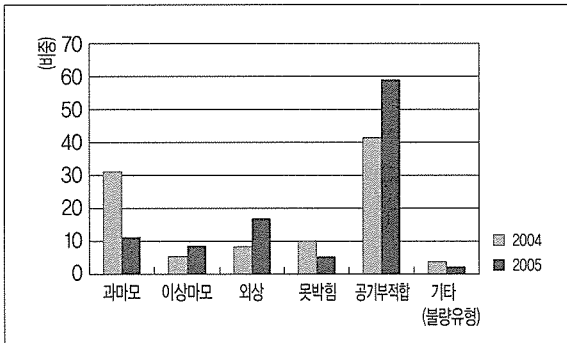


3. 타이어 정비불량 내역 및 건수

타이어 정비불량 건수 총 435건(정비불량차량 375대의 중복 불량 포함) 가운데 공기압 부적합이 181건으로 41.6%(부족 39.5%, 과다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과마모가 135건으로 31.0% 그리고 나머지 못 박힌 것 10.1%, 외상 8.7%, 이상마모(편마모) 5.7%, 그 외 기타(카카스 코드 절단, 사이드 월 크랙)가 2.8% 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비불량 유형별 구성비는 비슷한데, 눈에 띄는 것은 공기압 부적합의 비중이 전년보다 큰 폭 상승했으며 반면에 과마모 비중은 많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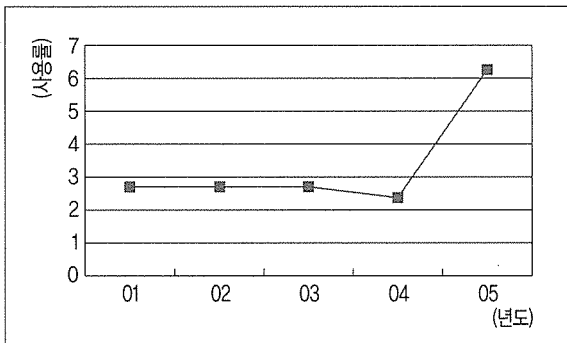
〈 04, 05년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 〉



4. 과마모된 타이어 사용 실태

타이어 사용한계(남은 홈깊이 1.6mm) 이하로 닳은 과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하여, 승용차가 5.4%로 전년 2.2%에 비해 3.2%포인트, 전세버스가 4.2%로 전년도 1.9% 대비 2.3% 포인트, 트럭이 13.2%로 전년 3.6%에서 9.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점검의 전체 과마모 타이어 사용률은 6.1%로 전년 2.4% 대비 3.7% 증가했다.

〈 과마모 사용률 〉



최근 5년간의 과마모 타이어 사용률은 위의 표에서 보듯

이 올해 6.1%로 예전 2~3% 정도 수준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의 경기부진 영향으로 타이어 교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 타이어 안전관리 설문조사(하반기) 결과

우리협회는 타이어 안전사용 점검 및 서비스를 실시함과 동시에 연 2회(상, 하반기) 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타이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설문응답자 수는 총 215명으로 응답자별 승용차 유형은 일반승용차 135명, 레저용 차량(RV, SUV 등) 49명, 승합차 27명, 짐차 4명이었으며, 그 결과를 간략히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설문조사 결과

1) 타이어 교체 시기 및 주행거리

타이어 교체시기는 '3년 미만' 132명(61.4%), '3년 이상 4년 미만' 56명(26%), '4년 이상 5년 미만' 20명(9.3%), '5년 이상' 7명(3.3%)으로 대부분의 운전자(96.7%)가 5년 이내에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하기까지의 사용주행거리는 '3만km 이상 4만km 미만' 약 25%, '4만km 이상 5만km 미만' 30%, '5만km 이상 6만km 미만' 23%, '6만km 이상' 이 22%로 운전자의 3/4 정도가 6만km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타이어 점검

타이어 점검의 빈도에 있어서는 '가끔' 점검이 58.6%, '자주' 점검 32.1%로 점검을 실시하는 운전자는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84%대비 약 7%p 증가하였고, 점검 실시자는 '운전자본인' 이 하는 경우가 약 50%로 가장 많았고, '카센터 및 정비업소' 가 47%, 그리고 나머지는 '타이어 판매점' 이었다. 점검 항목은 '공기압점검' 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못·이물질 박힘' 이 24.4%, '타이어 홈깊이' 가 19.9%, '기타 외상' 11.4% 순으로 나타났다.

타이어 공기압 점검주기는 '월 1회' 26%(56명), '2~3개월에 1회' 45.6%(98명) '6개월에 1회'가 20%(43명), '1년에 1회' 8.4%(18명)이었다.

3) 타이어 일반 지식에 관한 인지도

타이어 적정공기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53%로 상반기 대비 인지도 8%p 상승했고, 타이어 사용한계(남은 홈깊이 1.6mm)를 알고 있는 운전자는 49.3%로 상반기 대비 17.6%p 상승했으며, 제조(생산)일자가 타이어 옆면에 표기된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50.7%로 상반기 대비 인지도 20.8%p 상승했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타이어가 자연노화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50.7%(109명)이었다.

4) 주행 중 타이어 문제 경험

문제된 경험이 있었다는 운전자가 96명(45%) 이었는데 문제 유형 중 '펑크(70%)'와 '파열(26%)'이 95% 이상을 차지했다.

나.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1) 운전자의 약 97%가 5년 이내에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으며, 사용주행거리로는 3/4 정도가 6만km 정도 사용하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이어 교체 주기에 있어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타이어 점검 실시는, 점검을 (가끔 또는 자주) 한다고 응답한 운전자가 91%(일본타이어협회[JATMA] 05년 설문조사시 94%)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압 점검 빈도에 있어 협회가 권장하는 '월 1회 이상' 한다는 응답자가 26%(일본 32%)로 전체의 1/4 정도에 그쳐, 최소한 '한달에 한번은' 공기압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타이어 점검 항목 중 '공기압점검'이 약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약 47%의 응답자가 적정공기압을 모르고 있었으며 안전점검시 정비불량 유형 중 16.7%가 공기압 부적합(일본 15.9%)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공기압 관리가 대충 점검으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타이어의 사용한계 및 제조일자를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약 50%로 나타나 상반기 설문 결과 보다 인지도가 18~20%p 이상 높아져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주행중에 타이어 문제 경험이 있는 운전자 96명(44%) 중 '펑크' 경험이 67명(70%), '파열' 경험이 25명(26%)으로, 고속주행 중 이러한 문제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이어 수시 점검이 예방책이라는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05년 점검결과, 전년과 비교하여 점검차량의 전체적인 정비불량률은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압이 부적합하고 파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는 차량이 많아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좀더 효율적인 홍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운전자의 타이어 안전점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운전자 대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이어 안전관리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은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안전점검과 관심도 설문조사를 통한 운전자의 타이어 관리에 대한 현황을 체크하고 그에 맞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